

# 컴퓨터 속의 한글 이야기 (첫째 보따리)

김 경석

영진 출판사, 1995.03.

<http://asadal.pusan.ac.kr/~gimsg0/book/hgiyagi1.html>

## 제 7 장

# 셈틀에서 옛한글을 치기에 좋은 자판에 대해서-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을 중심으로

### 7.0.1 머리 (요약)

요즘 한글을 치는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하여, 셈틀에서 쓸 옛한글 자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두벌식 옛한글 자판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세벌식 옛한글 자판이 왜 두벌식보다 나은지를 알아 보겠다. 결론적으로, 세벌식 옛한글 자판을 쓸 것을 제안한다.

\* 1993 년과 1994 년에 글쓴이가 개발하여 발표한, 옛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옛한글 자판(그림 5-3)은, 이 글의 정신에 따라서 세벌식으로 만들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자판(그림 5-2)은 나랏 말씀에서 쓰는 자판(그림 5-3)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이 글에서 제안한 자판 그림(그림 5-2)을 신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글쓴이)

### 7.0.2 들머리

옛한글에서는, 요즘은 쓰지 않는 옛 당소리 흘글자 (△: 반 시읏, ○: 꼭지 달린 이응, ◡: 반 히읏), 옛 흘소리 흘글자 (·: 아래 아), 옛 당소리 겹글자 (보기 ㅅㅅ, ㅅㅅ 따위), 또는 옛 흘소리 겹글자 (ㅍ, ·: 아래 아 ) 등을 썼다. 옛한글 자료를 셈틀에 넣기 위해서는 옛한글 자판이 필요하게 된다.

멀지 않아 우리도 요즘 한글 사전이나 옛한글 사전을 셈틀을 써서 만들 날이 곧 오게 된다. 셈틀로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다순대로 낱말을 간추리는 것까지 모두 셈틀이 하게 되는 것이다. 셈틀을 써서 한글 사전을 만들 때 한글 자판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 그런데 요즘 글자를 칠 수 있는 자판이 세벌식, 네벌식, 두벌식 따위로 스무 다섯 해 동안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여 우리 나라 문화 발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으며, 아직도 한글 자판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정책 당국과 담당자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 기관이나 학자들이 이론적인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지 못한 때문이라 생각되며, 글쓴이를 포함하여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요즘 글자를 칠 수 있는 한글 자판의 이와 같은 혼란을 볼 때, 셈틀에서 옛한글을 치기에 좋은 자판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옛한글을 셈틀에서 다루는 것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자판을 미리 만들면 옛한글 자판에 대한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옛한글을 치기 위해서는 요즘 한글만을 칠 수 있는 자판을 바탕으로 조금 고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요즘 한글 자판과는 아주 다른, 옛한글을 치기에 좋은 자판을 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 보겠다.

## 7.1 요즘 한글 자판과 옛한글 자판

요즘 한글 사전이나 옛한글 사전을 보면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 글자가 들어간 옛 낱말이 있는데, 한글 사전을 썸틀로 만들려면 썸틀에서 이 옛 글자를 칠 수 있는 옛한글 자판이 있어야 한다. 또 사전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옛 글자를 썸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글 학자에게도 옛한글 자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글자를 칠 수 있는 자판이 세벌, 네 벌, 두 벌 따위로 몇 십 해 동안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여 우리 나라 문화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쳤으며, 아직도 한글 자판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요즘 글자를 치는 한글 자판의 이와 같은 혼란을 볼 때, 썸틀에서 옛한글을 치기에 좋은 자판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더욱이 옛한글을 썸틀에서 다루는 것이 아직 일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자판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옛한글을 치는 자판에 대한 혼란이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썸틀에서 쓰이고 있는 자판으로는 세벌식, 두벌식(표준)이 있고, 타자기에서 쓰이고 있는 자판으로는 세벌식, 두벌식 (지금 표준), 네벌식 (과거 표준; 1983-85 년에 폐기되어서 새로 네벌식 타자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쓰고 있는 네벌식 타자기는 망가질 때까지 계속 쓸 것이라 하므로, 앞으로 제법 오래 동안 네벌식 타자기는 쓰일 것이다) 이 있다. 한글 자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벌식"에 대해서 짧게 알아 보기로 하자.

세벌식이란, 첫소리 글자, 가운뎃소리 글자, 그리고 끝소리 글자 (받침) 가 각각 한 벌씩 있기 때문에 세 벌이라고 부른다.

두벌식은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같은 글쇠에 있으므로 한 벌이 줄어들어서 두벌식 (닿소리 글자 한 벌과 홀소리 글자 한 벌) 이라고 부른다.

네벌식은 첫 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각각 한 벌씩 있고, 가운뎃소리 글자가 두 벌이 있으므로 모두 더하면 네 벌이 되므로 네 벌이라 부른다. 네벌식에서 가운뎃소리 글자가 두 벌이 있는 것은, 받침이 있을 때는 가운뎃소리 글자가 좀 짧고, 받침이 없을 때는 가운뎃소리 글자를 좀 길게 하여 한 소리마디가 늘 바른 네모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기를 들어 보자. "각아" 라는 낱말에서, 두벌식에서는 첫소리 글자 "ㄱ" 과 끝소리 글자 "ㄱ" 이 꼭 같은 글쇠를 치지만, 세 벌과 네 벌에서는 다른 글쇠를 친다. 또 두 벌과 세벌식에서는 " ㅏ " 를 꼭 같은 글쇠를 쓰지만, 네벌식에서는 다른 글쇠를 쓴다.

옛한글을 치기 위해서는 요즘 한글만을 칠 수 있는 자판을 바탕으로 조금

고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요즘 한글 자판과는 아주 다른, 옛한글을 치기에 좋은 자판을 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될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요즘 글자만 칠 수 있는 자판을 조금 고쳐서 옛 글자를 치는 데 쓰도록 하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아주 다른 새 자판을 만들어 써야 할 것이다. 글쓴이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요즘 글자만을 칠 수 있는 자판을 조금만 고쳐서도 옛 글자를 아주 쉽고 빠르게 쳐 넣을 수 있는 자판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 병우 세벌식 자판 (그림 5-1을 보라) 에다, 옛 흘글자 일곱을 더해서 만든 세벌식 옛한글 자판 (그림 5-2를 보라) 을 만들 수 있다.

옛한글 자판을 살펴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가정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모아 쓰기를 바탕으로 옛 글자를 썸틀에서 다루는 것을 생각하겠다. 따라서 풀어 쓰기를 한다면 어떤 자판이 좋든가, 또는 모아 쓰기와 풀어 쓰기를 같이 하는 데는 어떤 자판이 좋다는 등의 얘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둘째, 요즘 글자를 치는 자판은 타자기와 썸틀에서 같은 자판을 쓸 수 있어야 하겠지만, 옛 글자는 수동식 타자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썸틀에서만 다룬다고 보고 생각하겠다. 자판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데가 타자기와 썸틀인데, 옛 글자를 수동식 타자기로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서 수동식 타자기로 옛한글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옛 글자는 썸틀에서만 다룬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셋째, 옛한글에 나오는 방점은 자판 비교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넷째, 홀소리 겹글자를 치는 방법은 요즘 한글 자판이나 옛한글 자판에서 비슷한 것 같아서 다루지 않겠으며, 닿소리 겹글자 (다시 말해서 첫소리 겹글자와 끝소리 겹글자) 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 7.1.1 두벌식 옛한글 자판

썸틀에서 두벌식 자판으로 요즘 글자를 치면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닿소리 글자로 치게 되므로 부림 차례[프로그램]에서 닿소리 글자가 첫소리 글자인지 끝소리 글자인지를 구별하여 저장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보기를 들어 요즘 글자에서 "ㄹ, ㅂ, ㅃ" 이 잇달아 들어 오면, 끝소리 겹글자 "ㄹㅂ"과 첫 소리 흘글자 "ㅂ"인지, 아니면 끝소리 흘글자 "ㄹ"과 첫소리 겹글자 "ㅃ"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의 두벌식 썸틀 글자판에서는 첫소리 겹글자 다섯 개 (ㄱ, ㅋ, ㆁ, ㆅ, ㆆ)는 글쇠를 따로 두어서 첫소리 겹글자를 한 번에 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ㄹ, ㅃ" (글쇠를 두 번 누름) 이 들어 오면 끝소리 흘글자 "ㄹ" 과 첫소리 겹글자 "ㅃ"이며, "ㄹ, ㅂ, ㅃ" (글쇠를 세 번 누름) 이 들어 오면,

끝소리 겹글자 "ㄹ"과 첫소리 홀글자 "ㄴ"으로 처리된다. 요즘 글자에서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글자에서 홀글자와 겹글자가 몇 개인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즘 글자	홀글자	겹글자	모두
첫소리 글자	14	5	19
가운데소리 글자	10	11	21
끝소리 글자	14	13	27
모두 더하면	홀글자 38	겹글자 29	모두 67

그런데, 요즘 글자에서 첫소리 글자가 겹글자인 것이 다섯 (ㄱ, ㄷ, ㅌ, ㅃ, ㅆ)뿐이고, 끝소리 글자가 겹글자인 것이 열 셋뿐이지만, 옛한글에 들어 가면 아직까지 어떤 첫소리 겹글자와 끝소리 겹글자가 있는지도 다 모른다고 한다.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두벌식 자판을 고쳐서 옛 글자를 다루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방법:** 요즘 글자의 첫소리 겹글자 다섯 개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었듯이, 옛한글에 나오는 첫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어 한 번에 칠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큰 어려움이 따른다.

1) 자판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겹글자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겹글자의 글쇠 자리를 정할 것이며, 한 번 자판을 정했다가 다시 새로운 겹글자를 알게 되어 이를 자판에 더 넣고자 하면 자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칠 것이며, 그 고칠 때마다 오는 혼란과 불편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2) 보통의 자판은 글쇠가 쉰 개를 넘지 못하는데 윗글자쇠 [쉬프트 키]를 쓴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백 개이다. 그 보다 더 많이 하려면, 특별한 글쇠 (컨트롤, 에스케이프, 앞선, 올터니트 따위) 와 같이 쳐야 하는데, 한 글자를 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글쇠를 쳐야 한다면 그것을 다 외워서 치지 못하고, 아마도 옆에 표를 두고 보면서 치게 되니 이는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이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면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세벌식으로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3) 이렇게 글쇠가 많아지면 자판을 외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자판을 외워서 치지 못하고 보고 치게 되어서 능률이 많이 떨어진다.

**둘째 방법:** 첫소리 겹글자에 글쇠를 따로 주는 대신, 끝소리 겹글자에 글쇠를 따로 주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첫째 방법과 거의 같은데, 만일 끝소리 겹글자의 수가 첫소리 겹글자의 수보다 적다면 겹글자 글쇠가 줄어들므로, 이 방법은 첫째 방법보다야 조금 낫지만, 첫째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글자를 치는 자판과 많이 달라지며 또한 치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셋째 방법:** 위의 첫째와 둘째 방법을 더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첫소리 겹글자와 끝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므로 글쇠 수가 늘어나며 따라서 다 외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여 첫소리 겹글자, 가운뎃소리 겹글자, 끝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면 치는 사람은 힘들지만, 셈틀에서 부림 차례를 짜거나 고치기에 쉬울 때가 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은 초기 실험 단계에서는 해 볼 수 있지만, 실용 단계에서 쓰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며 되도록이면 부림 차례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이를 쓰는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방법:** 두벌식 자판으로 옛글자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리 마디의 마지막 글자 (끝소리 글자가 있을 때는 끝소리 글자, 그렇지 않으면 가운뎃소리 글자) 를 치고 나서 다음에 첫소리 글자를 치기 전에 한 소리 마디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글자를 한 자 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필요 없는 글쇠를 한 소리 마디마다 한 번씩 더 치게 되므로 치는 것이 엄청나게 느려진다.

얼마나 느려지는가 알아 보자. 소리마디로 따져서, 한글은 어림잡아 40% 가 끝소리 글자 (받침) 가 있으며, 60%가 받침이 없다. 따라서 한 소리 마디의 평균 글자수가  $(3 \times 0.4 + 2 \times 0.6) = 2.4$ 이므로 한 소리 마디를 치는 데 글쇠를 평균 2.4 번 친다. 그런데 한 소리 마디가 끝날 때마다 특별한 글자를 한 자씩 더 쳐서 소리 마디가 끝난 것을 알려 주게 되면, 한 소리 마디를 치는데  $2.4 + 1 = 3.4$  번 글쇠를 치게 된다. 따라서 속도가  $2.4/3.4 = 70\%$ 이므로 30%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느린 것이다.

또 옛 글자를 칠 때 소리 마디 사이마다 특별한 글쇠를 치게 되므로, 요즘 글자를 칠 때와 옛 글자를 칠 때의 방법이 달라서 많은 혼동이 오게 된다. 이 방법은 두벌식 인쇄 전신기에서 이미 써 보았으므로 그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인쇄 전신기에서 이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 (아마도 위의 첫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벌식 자판으로 옛 글자를 다루면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많은 문제와 비효율성이 따르게 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답답하게 당해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도 없는 해결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벌식 자판이다. 이제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했을 때를 알아 보자.

### 7.1.2 세벌식 옛한글 자판

옛한글에 나오는 닿소리 겹글자나 홀소리 겹글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직 다 모르지만, 닿소리 홀 글자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반 시옷, 꼭지 달린 이응, 반 히응이 각각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로 올 수 있고, 그리고 홀소리 홀글자는

아래 아 가 있다. 따라서 옛한글에만 나오는 홑글자는 첫소리 글자 셋, 가운데소리 글자 하나, 끝소리 글자 셋 해서 모두 일곱인데,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하면 이 일곱 글자만 자판에 더해 주면 옛 글자를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할 수 있으며, 옛 겹글자를 지금 다 몰라도 자판을 만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새로운 겹글자가 나오면 부림 차례만 바꾸면 된다.

두벌식에서는 새로운 겹글자가 나오면 부림 차례뿐만 아니라 자판도 바꾸어야 하므로 쓰는 사람이나 부림 차례를 짜는 사람이나 다 영향을 받지만, 세벌식에서는 자판이 바뀌지 않으므로 쓰는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고 다만 부림 차례만 바꾸면 된다. 이런 것이 진짜 셴들이 사람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닐까? 자판을 쓰는 사람은 제법 많지만, 옛한글을 위한 부림 차례를 고치는 일은 전문가 몇 사람만 하면 된다. 따라서 세 벌을 바탕으로 한 것이 훨씬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옛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를 보기를 들어서 알아 보자. 먼저 두벌식 자판을 생각해 보자. 요즘 끝소리 겹글자 "ㄹㅂ" 이 있고, 옛 첫소리 겹글자 "ㅂㅅ" 이 있는데, 보기를 들어 자판에서 두벌식으로 "ㄹ, ㅂ, ㅅ" (글쇠를 세 번 칩) 이 들어 오면, 끝소리 홑글자 "ㄹ" 과 첫소리 겹글자 "ㅂㅅ"인지, 끝소리 겹글자 "ㄹㅂ"과 첫소리 홑글자 "ㅅ"인지 알 수 없으므로 두벌식 자판을 쓰려면 위에서 말한대로 아주 비능률적인 네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써야 한다.

첫째 방법을 따르면, 가) 끝소리 겹글자 "ㄹㅂ"과 첫소리 홑글자 "ㅅ"이면, "ㄹ, ㅂ, ㅅ" (글쇠를 세 번 칩) 으로 치고, 나) 끝소리 홑글자 "ㄹ"과 첫소리 겹글자 "ㅂㅅ"이면, "ㄹ"을 치고 나서 "ㅂㅅ" 을 치게 되는데, 때로는 한 글쇠로 "ㅂㅅ" 을 치거나 아니면 특별한 글쇠와 조합해서 복잡한 방법으로 글쇠를 몇 개나 치게 될 것이다 (그래픽에서 특별한 도형 기호를 쳐 본 사람은 쉽게 짐작할 것이다).

둘째와 셋째 방법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다.

넷째 방법을 따르면, 가) 끝소리 겹글자 "ㄹㅂ"과 첫소리 홑글자 "ㅅ"이면, "ㄹ, ㅂ" (글쇠를 두 번 칩)을 친 뒤, 소리 마디를 나누는 특별한 글쇠를 치고 나서, "ㅅ"을치고, 나) 끝소리 홑글자 "ㄹ" 과 첫소리 겹글자 "ㅂㅅ"이면, "ㄹ"을 치고 나서 소리 마디를 나누는 특별한 글쇠를 치고 나서 "ㅂ, ㅅ" (글쇠를 두 번 칩)을 치게 된다.

그러면 세벌식으로 하면 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알아 보자. 세벌식에서는 가) 끝소리 글자 "ㄹ", 첫소리 글자 "ㅂ", 첫소리 글자 "ㅅ"이 들어 오면 끝소리 홑글자 "ㄹ" 과 첫소리 겹글자 "ㅂㅅ"으로 해 주고, 나) 끝소리 글자 "ㄹ", 끝소리 글자 "ㅂ", 첫소리 글자 "ㅅ"이 들어 오면 끝소리 겹글자 "ㄹㅂ"과 첫소리 홑글자 "ㅅ"으로 해 준다.

옛 글자라고 해서 특별히 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옛 글자를 처리해 주는 부림 차례이다. 요즘 글자를 치는 사람이 옛글자를 치고자 하면 글쇠 일곱개만 더 외우면 나머지는 모두 부림 차례에서 알아서 해 준다. 이런

것이 진정한 한글 전산화라 하겠다.

이제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을 비교해 보았으므로, 실제로 옛 낱말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몇 가지 보기를 보자. <<이조어 사전>>에 보면 "멜븐"이라는 낱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두벌식 자판으로 치면, "멜븐" 인지 "뵤븐" 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ㅅ 이 첫소리 글자에 붙어도 될 것 같고, 끝소리 글자에 붙어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옛 낱말인데, 요즘 두벌식 자판으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과 구별할 수가 없다):

- (메이다, 멩이다): 첫소리 두겹 글자 "ㅁ "
- (긱뽡, 긱뽡): 첫소리 두겹글자 "ㅅ "
- (뽡뽡, 뽡뽡): 첫소리 두겹글자 "ㅅ "
- (어뽡다, 업뽡다, 없뽡다): 첫소리 세겹글자 "ㅅ " "
- (티뽡다, 텃뽡다, 텃뽡다): 첫소리 두겹 글자 "ㅅ "

마지막 두 보기에서는 두벌식에서는 세 가지로까지 풀이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그림 5-1 과 5-2 의 한글 자판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보기로 하자. 그림 5-1 자판은 공 병우식 샘틀용 한글 자판 (1988년 2월에 발표된 통일 자판) 이며, 그림 5-2 자판은 그림 5-1 자판을 바탕으로 옛한글을 쉽게 칠 수 있도록 옛 흘글자 일곱을 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제안하는 옛한글 자판 이다.

한 글쇠로 네 가지 다른 글자를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글쇠를 나타내는 네모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는 한글을 칠 때의 글자이고, 왼쪽에 있는 두 글자는 로마자를 칠 때의 글자이다. 한글의 경우 윗쪽에 있는 글자는 윗글자쇠를 누르고 칠 때의 글자이고, 아랫쪽에 있는 글자는 그냥 칠 때의 글자이다. 로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자 26자의 경우 윗글자쇠를 누르고 치면 큰 글자가 나오고, 그냥 치면 작은 글자가 나오는데, 자판을 간단하게 하려고 작은 글자는 나타내지 않고 큰 글자만 그려 넣었다. 또한 한글의 경우에 빈 자리가 군데 군데 보이는데, 그것은 자판 그림을 간단하게 하려고 한글이 아닌 특별한 부호는 거의 다 빼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쓴이가 제안하는 그림 5-2의 옛한글 자판은 "완성안"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시안"이다. 그림과 같이 한 이유를 조금 설명하면, 옛 첫소리 흘글자와 옛 가운데소리 흘글자의 경우 요즘 글자와 비슷한 자리에 놓아서 외우기 쉽도록 했다.

반 시옷은 시옷의 윗글자쇠에, 꼭지 달린 이응은 이응의 윗글자쇠에, 반 히읏은 히읏의 윗글자쇠에, 그리고 아래 아는 ㅏ 의 윗글자쇠에 놓았다. 그런데, 끝소리 흘글자의 경우에는 시옷, 이응, 히읏의 윗글자쇠 자리가 이미 차 있기 때문에 요즘 글자 가까이 있는 빈 자리에 놓았는데, 반 시옷은 ㅑ 의 윗글자쇠에, 꼭지 달린 이응은 ㅓ 의 윗글자쇠에, 그리고 여린 히읏은 ㅕ의 윗글자쇠에 두었다.



아직 옛 글자의 짓기 [빈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어서 어느 글자를 어느 글쇠에 놓는 것이 능률적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배열했다. 자주 나오는 요즘 끝소리 겹글자 ㄴㅎ, ㄹㅅ, ㅅ 에 따로 글쇠를 준 것처럼, 만일 어떤 옛 겹글자가 아주 자주 나오면 그 겹글자를 어떤 한 글쇠에 놓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림 5-2의 자판은 세벌식을 바탕으로 한 옛한글 자판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큰 뜻이 있으며, 옛한글에 대한 연구가 나아감에 따라 옛 홑글자의 글쇠 자리를 바꾸거나 자주 나오는 옛겹글자에 따로 글쇠를 줌으로써 더 낮게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 7.1.3 네벌식 옛한글 자판

네벌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네벌식 자판에서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다른 글쇠를 쓰므로, 두벌식에서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세벌식에서처럼 글쇠 일곱 개만 더하면 옛글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네벌식은 처음부터 셈틀을 위한 자판이 아니고 타자기를 위한 자판일뿐만 아니라, 1969년부터 쓰다가 1983-1985년에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폐기한) 자판이므로 (임 중철 88), 셈틀에서 이를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요즘 글자만을 치는 데 있어서 세벌식보다 많이 (40-60% 쯤) 느린데, 그것은 옛글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네벌식 자판으로 옛 글자를 셈틀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 7.1.4 옛한글 자판에 대한 비교 요약 및 제안: 세벌식 자판을 쓰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 글자를 셈틀에서 칠 때는 세벌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두벌식은 비능률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

두벌식을 바탕으로 해서 옛 글자를 치는 자판을 만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며 아주 비능률적이라 거의 쓸 수 없다. 어떤 방법에서는 당소리 겹글자를 우리가 새로 알게 될 때마다 자판과 부림 차례를 고쳐야 하며, 따라서 그 때마다 그 고쳐진 자판을 새로 외워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치는 속도가 30%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치는 방법이 요즘 글자를 칠 때와 옛글자를 칠 때가 많이 달라지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욱이 이 방법은 이미 인쇄 전신기에서 써 보고 나쁜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서 버린 방법이므로 이 방법은 채택할 수가 없다.

요즘 글자를 칠 수 있는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한 옛한글 자판은 글쇠 일곱 개를 새로 외우면, 어떤 겹글자가 있더라도 아무 어려움 없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글자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옛 글자를 치기 위해서는 아마 두 세 시간만 연습하면 될 것이다.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요즘 글자를 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세벌식 자판이 두벌식 자판보다 훨씬 낫다.

○ 두벌식 자판은 수동식 타자기와 셴틀에서 글자 배열은 같게 했지만, 치는 방법이 달라서 자판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 (김 경석 87). 거기에 비해 세벌식 자판은 글자 배열뿐 아니라 치는 방법까지 모두 같게 해서 자판 통일을 이미 이루었다.

○ 위에서 보았듯이, 셴틀에서 두벌식 자판으로는 요즘 한글을 치는 자판과 옛한글을 치는 자판 사이에 글자 배열이 많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치는 방법이 달라지든지 해야 하므로 완전한 자판 통일을 할 수 없음을 보았다. 거기에 비해서 세벌식 자판은 요즘 한글을 칠 때와 옛한글을 칠 때의 글자 배열 및 치는 방법을 완전히 통일할 수 있음을 보았다.

○ 위의 두 가지 점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면, 두벌식으로는 수동식 타자기, 요즘 한글을 치는 셴틀 자판 및 옛한글을 치는 셴틀 자판이 제각기 다 다르게 되어 어느 두 자판도 통일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세벌식은 수동식 타자기, 요즘 한글을 치는 셴틀 자판 및 옛한글을 치는 셴틀 자판의 글자 배열 및 치는 방법이 꼭 같아 완전한 자판 통일을 할 수 있다.

○ 한글 글꼴 [한글 문서 편집기 또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의 부림 차례를 짤 경험이 있는 강 태진님은 (강 태진 88) 에서 실제 자료를 제시하면서, 두벌식 자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벌식 자판을 처리할 때 보다 37% 더 긴 부림 차례를 째었다고 한다.

수동식 타자기와 셴틀용 요즘 한글 자판은 세벌식이 두벌식에 비해서 낫다. 또한 두벌식으로는 그 두 자판의 통일 (글자 배열뿐만 아니라 치는 방법까지 같은) 을 이룩할 수 없지만, 세벌식으로는 이룩할 수 있다. 셴틀에서 쓰고 있는 세벌식 요즘 한글 자판에 옛 흘글자 일곱 개를 더 넣어서 만든 세벌식 옛한글 자판을 쓰게 되면, 수동식 타자기 자판, 셴틀용 요즘 한글 자판 및 셴틀용 옛한글 자판 사이에 완전한 자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 7.2 맺는말

셴틀에서 옛한글을 칠 때, 두벌식 자판을 쓰면 아주 비능률적 이지만, 세벌식 자판을 쓰면 사람들이 쓰기도 쉽고, 풀그림 [부림 차례] 을 짜기도 쉬우므로, 세벌식 옛한글 자판을 쓸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세벌식은 수동식 타자기 자판, 셴틀용 요즘 한글 자판, 그리고 셴틀용 옛한글 자판의 완전한 통일 (글자 배열뿐만 아니라 치는 방법까지) 을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완성형과 두 바이트 조합형을 정부 복수 표준으로 인정한 것처럼, 세벌식도 두벌식 자판과 더불어 정부 복수 표준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1989.6.10.에 고쳐 썼음; 1994.9.20.에 고쳐 썼음; 2021.12.02.에 다시 고쳐 씀)

그림 5-1 공 병우식 샘틀용 한글 자판 (1988 년 2월에 발표된 통일 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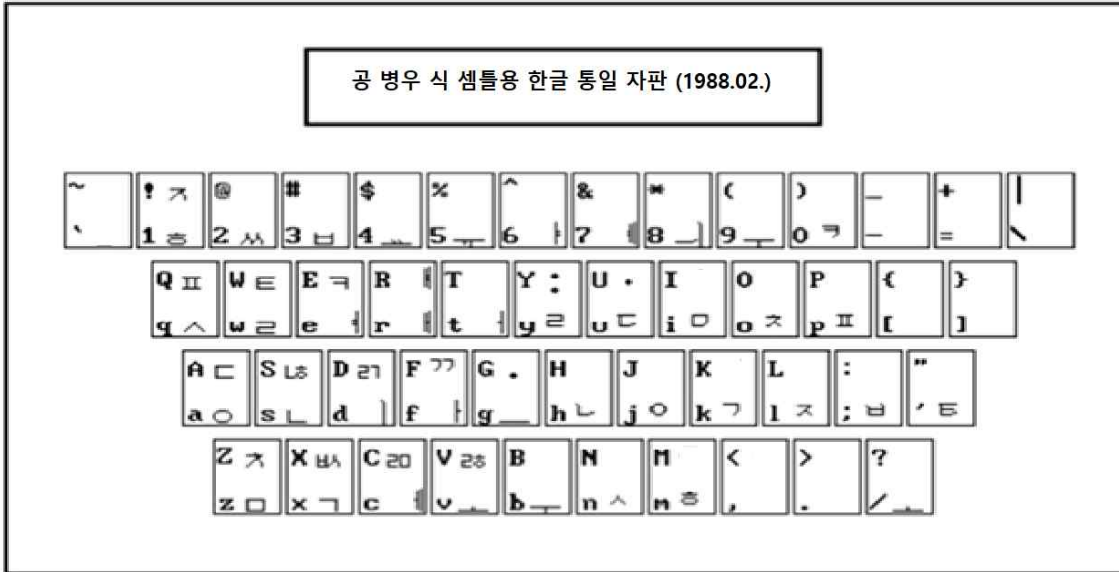


그림 5-2 [그림 없음] 글쓴이가 이 글에서 제안한 3벌식 옛한글 자판: 그림 5-1의 공 병우식 샘틀용 한글 자판에 옛 흘글자 일곱 (첫소리 글자 셋, 가운데소리 글자 하나, 끝소리 글자 셋) 을 더했다.

그림 5-3 글쓴이가 제안한, 옛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옛한글 세벌식 자판 (93-12-31): 그림 5-1의 공 병우식 샘틀용 한글 자판에 옛 흘글자 일곱 (첫소리 글자 셋, 가운데소리 글자 하나, 끝소리 글자 셋) 자 등을 더했다.

